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관한 연구

박수미* · 정기선**

초 록

이 연구는 차별의식에 대한 전국규모의 조사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사람들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적 태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규명하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 가치와 편견적 태도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의 정도를 측정해 본 결과, 비정규직과 학벌에 대한 편견이 가장 낮았다. 그 밖의 동성애자나 자발적 무자녀 가정, 편부/편모 가정의 자녀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매우 강한 편이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소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의 정도는 더욱 강해졌다. 그러나 조직생활과 관련한 여성의 능력에 대한 편견과 기타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의 정도는 표준편차가 상당히 큰 편으로, 우리 사회에 이들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 가치와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평등 및 사회정의를 중시하는 보편주의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반면, 권력 가치는 소수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사회의 편견적 태도를 줄이고 소수 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주제어: 사회적 소수자, 차별, 고정관념, 편견, 보편주의 가치, 권력 가치

*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정책개발실장

I. 들어가는 말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점은 실질적 평등을 당연시하는 사회이다. 실질적 평등이라 함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다. 실질적 평등이 위배되는 곳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차별현상은 매우 부정적이며 개인의 행복과 사회발전에 중대한 저해 요인으로 간주된다. 차별은 실질적 평등과 반대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인식된다. 누구나 차별의 피해자가 되는 데 저항감을 갖고 또 차별의 가해자로 인식되는 것도 꺼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 모두는 의식한 채, 혹은 의식하지 못한 채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남들을 차별하기도 한다. 차별현상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상태에서 사회 전체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최근 들어 사회전반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의 차별해소 의지도 강력히 표명되고 있다.

차별해소에 대한 당위적 요구가 높고 이에 부응한 정부의 정책적 움직임도 부산한 데 비해 우리 사회의 차별 관련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국민들의 차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무엇이 차별이고 무엇이 차이인지, 어디까지를 차별의 범위로 보고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뚜렷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차별을 논할 때 주요하게 부각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도 이제 구체화 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며, 다양한 집단간의 상호 이해와 조정에 전제가 될 수 있는 ‘차이’에 관해서도 아직 사회적으로 공유할 만한 기준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차별’은 ‘불평등’, ‘불공정’, ‘형평성’ 등의 각기 다른 이름으로 끊임없이 사회적 쟁점이 되어 왔다. 1980년대 거대담론이 휩쓸던 시기에 차별의 문제는 불평등의 차원에서 이 사회에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나, 경제발전과 일련의 민주화 경험으로 불평등 문제는 보다 구체적인 차별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차별은 성이나 장애, 종교 등 개인의 태생적, 사회적 성격을 사유로 교육, 일상생활, 고용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구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차별은 철저하게 근대적인 개념이며, 그

런 만큼 사회의 분화 정도가 고도화될수록 사회성원들의 차별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차별해소에의 요구가 점차 증가해 왔다. 차별행위는 개개인의 기본적 자유 향유나 권리행사를 저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통합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볼 때 역기능을 초래하게 되고, 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마련이다.

이 연구는 차별의 여러 영역 가운데에서 특히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주목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선 차별감수성이 높아짐에 따라 차별 해소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사회 구성원 사이의 삶의 유형이나 가족 구성 방식, 일반적인 가치관 등에서 상당히 다양한 분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구성원간의 분화 현상에 따라 기존의 가치관이나 권력의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가 점차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연구는 차별 개념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적 태도를 살펴보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 가치와 이 태도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1. 연구 내용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 또는 편견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 가치’가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고정관념 또는 편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살펴볼 사회적 소수자 집단은 장애인, 여성, 외국인노동자, 노인, 기타 사회적 소수자(동성애자, 이혼자, 자발적 무자녀 부부, 편부모 가정의 자녀, 외모 관련 집단 등)이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의 한 예언변인이 될 수 있는 ‘일반 가치’ 가운데 이 글에 포함된 것은 ‘보편주의 가치’, ‘권력가치’ 및 ‘자기지도 가치(개인주의적 가치)’, 이렇게 세 가지 가치이다. 개인의 가치와 편견의 관계를 검토하였던 김혜숙(1999)의 연구에 의하면, 이들 세 가지 가치는 북한 사람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보편주의 가치’ 측정 문항은 ‘평등’, ‘사회정의’, ‘마음이 넓음’, ‘환경보호’, ‘정직’ 및 ‘도움이 됨’의 6개 문항으로 이루어졌고, ‘권력가치’는 ‘사회적 권력’, ‘사회적 인정’ 및 ‘권위’의 3개 문항, 그리고 ‘자기지도 가치’는 ‘자유’, ‘독립성’, ‘야망 있음’ 및 ‘성공’의 4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04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전국단위(제주도 제외)로 층화표집된 일반인 2,000명에 대한 차별의식조사 결과이다. 이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면접조사로 실시되었으며, 조사 기간은 2004년 7월 5일~2004년 8월 21일이다.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2\%$ 이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 중 남녀의 비율은 각각 49.4%와 50.6%이며, 연령 분포는 20대가 23.2%, 30대가 25.2%, 40대가 22.4%, 그리고 50세이상 응답자가 29.2%이다. 학력분포는 중졸이하 학력자가 18.4%이고 고졸학력자와 전문대이상 학력자가 똑같이 40.8%이다.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판매종사자가 22.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사무종사자가 12.7%로 많으며, 서비스종사자 7.8%, 기술공 및 준전문가 4.6%로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22.2%, 경기/인천/강원권이 28.6%, 대전/충청권이 10.2%, 광주/전라권이 11.2%, 대구/경북권이 11.1% 그리고 부산/울산/경남권이 16.7%이다. 조사대상자의 거주지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전체의 48.6%가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40.7%는 중소도시, 10.6%는 군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연구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5개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 응답 결과를 요인분석하여 대상에 따른 편견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일반가치를 설명변수로 하고 5개 사회적 소수자 집단별 편견 정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범 주	남 성	여 성	계
연령			
20대	239(12.0)	226(11.3)	465(23.3)
30대	257(12.9)	247(12.3)	504(25.2)
40대	229(11.4)	219(11.0)	448(22.4)
50대	128(6.4)	128(6.4)	256(12.8)
60세 이상	135(6.7)	192(9.6)	327(16.3)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70(3.5)	116(5.8)	186(9.3)
100~200만원 미만	264(13.3)	213(10.7)	477(24.0)
200~300만원 미만	310(15.6)	332(16.7)	642(32.3)
300~400만원 미만	192(9.7)	201(10.1)	393(19.8)
400만원 이상	147(7.4)	141(7.1)	288(14.5)
학력			
중졸이하	128(6.4)	240(12.0)	368(18.4)
고졸	358(17.9)	457(22.9)	815(40.8)
대재이상	502(25.1)	315(15.7)	817(40.8)
직업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0(1.5)	2(0.2)	22(1.7)
전문가	32(2.4)	27(2.0)	59(4.4)
기술공 및 준전문가	58(4.3)	34(2.5)	92(6.8)
사무종사자	154(11.5)	100(7.5)	254(19.0)
서비스종사자	73(5.5)	82(6.1)	155(11.6)
판매종사자	261(19.5)	181(13.6)	442(33.1)
농/임/어업/숙련종사자	20(1.5)	14(1.0)	34(2.5)
기능원 및 관련기능 쫓사자	114(8.5)	22(1.7)	136(10.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9(2.9)	2(0.2)	41(3.1)
단순노무종사자	64(4.8)	38(2.8)	102(7.6)
권역			
서울	219(10.9)	225(11.2)	444(22.2)
경기/인천/강원	285(14.3)	287(14.3)	572(28.6)
대전/충청	101(5.0)	103(5.2)	204(10.2)
광주/전라	109(5.4)	114(5.7)	223(11.1)
대구/경북	110(5.5)	112(5.6)	222(11.1)
부산/울산/경남	164(8.2)	171(8.6)	335(16.8)
거주지규모			
대도시	479(24.0)	493(24.6)	972(48.6)
중소도시	402(20.1)	413(20.6)	815(40.7)
군지역	107(5.3)	106(5.3)	213(10.6)

Ⅲ. 선행연구검토

차별이 포괄하고 있는 범위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차별의 세 가지 차원은 신념적 측면의 고정관념, 감정적 측면의 편견, 행동적 측면의 차별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사회적 하위 집단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고정관념, 또는 편견적 태도이다. 고정관념은 ‘특정 집단의 모든 성원들은 어떤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과장되게 일반화시켜 믿는 신념들의 집합’으로서, 이것이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동반할 때 편견이라고 한다(Allport, 1954; Aronson, Wilson, and Akert, 1999).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개인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내용은 사실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생명력을 가진 사회적 실체로 존재하여,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편견은 흔히 특정 집단에 대한 호감도, 신뢰도, 사회적 거리감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정기선, 1999; 정기선, 2003). 결국 차별현상은 사회구조적·규범적 한계 내에서 형성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행위의 수준으로 발현된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는 왜 생길까? Katz(1960)는 사람들이 어떠한 대상 혹은 집단에 대해 태도를 가지는 것은 태도가 네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태도가 지식 기능(즉, 대상에 대한 정보와 이해를 돕는 기능), 가치 표현 기능(즉,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확신을 표현하도록 하는 기능), 자아방어 기능(자신에 대한 위협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기능) 및 실용적 기능(즉, 보상을 극대화하고 처벌을 최소화시켜 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이후의 연구자(Gastil, 1992; Herek, 1987; Shavitt, 1989)들은 Katz가 제안한 태도 기능 이외의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을 정리해 보면 개인적 실용성, 사회적 실용성, 가치표현, 사회적 적응(즉,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 사회 정체(즉, 집단에의 소속감을 가지는 것), 자아존중 유지 동기 등이 있다. 한 사회의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는 특히 가치 표현이라든지 혹은 자아방어 기능이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또 다른 연구자들에 따르면,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는 여러 가지 동기적 요인들이 개입될 수 있다고 한다. Fiske(1998)는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사회정보 처리 과정에 사람들이 가지는 동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과정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편견적으로 되도록 하거나 혹은 보다 객관적으로 되도록 한다고 하였다. 그녀는 이러한 주요 동기들로 정확한 이해의 동기, 소속의 동기, 통제의 동기, 자기 고양 동기 그리고 신뢰의 동기들을 들고 있다. Fiske는 정확한 이해의 동기가 높아지면 편견적 과정이 약해지고, 반면 통제의 동기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편견적 과정이 심해진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인종 편견에 관한 이론들은 소수 인종에 대한 편견이나 양가감정적 태도는 백인들이 가지는 개인주의적 가치(즉, 자립주의, 근면주의 혹은 형평에 대한 가치)와 인종 평등주의적 가치가 상충하는 데에서 오는 불편한 감정이나 불안한 감정에 의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Gaertner & Dovidio, 1986; Katz & Hass, 1988). 이에 따라 형평 가치가 특출해지면 소수집단을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등에 반대하는 태도가 나타나고, 반대로 평등 가치가 특출해지면 소수 집단에 보다 동조적인 태도가 나타났다. 또한 Mackie, Devos 및 Smith(2000)는 사람들이 자신과 상반되는 가치(즉, 자유주의적 혹은 보수주의적)를 가지는 사람들을 외집단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가치의 갈등이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분노 혹은 두려움)을 유발시켜 상호 대치 혹은 회피 행동 경향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Schwartz(1992)는 Rokeach(1973)의 가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가치들을 10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차원들은 자기-지도(self-direction, 즉,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것, 통제와 완성에 대한 가치), 보편주의(일반적 타인들에 대한 배려, 사회정의, 환경, 평등에의 관심) 자비(가까운 타인에 대한 배려, 도움이 되는, 용서하는, 정직한), 전통(전통에 대한 존중, 독실한), 동조(복종, 자기 통제), 자극(재미있는 생활, 변화있는 생활), 쾌락(쾌락, 삶을 즐기기), 성취(야심있는, 성공적인), 권력(사회적 권력, 부, 사회적 인정) 및 안전(국가의 안전, 은혜에 보답, 소속감, 가족의 안전)이었다. Schwartz(1992)는 또한 이러한 차원들을 상위 두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기-고양(자극, 쾌락, 성취, 권력, 안전)

대 자기-초월(자기지도, 보편주의, 자비, 전통/동조), 그리고 변화에 개방적인(보편주의, 자기지도, 자극, 쾌락, 성취) 대 보수적(자비, 전통/동조, 안전, 권력). Schwartz(1992)는 이 가치 척도를 20개국(즉, 호주, 홍콩, 대만, 일본 등)의 사람들에게 실시하여 본 결과, 문화에 상관없이 비슷한 차원의 가치들이 얻어졌다고 보고하였다.

김혜숙(2002)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치들이 소수 집단(예컨대, 북한 사람, 여성)에 대한 태도나 이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태도에 일관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즉, 평등이나 사회정의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보편주의 가치는 북한 사람과의 낮은 사회적 거리감(즉, 친밀한 인간관계 의도), 대북지원 정책이나 민간교류 정책에 대한 찬성 태도, 지역감정의 원인은 정치인 때문이라는 지각 및 성역할 평등지지 태도를 예언해 주었다. 이외는 반대로 권력 동기는 북한 사람과의 보다 높은 사회적 거리감,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나 민간교류정책에 대한 반대 태도, 지역감정의 원인이 호남사람과 영남사람의 성격 때문이라는 지각 그리고 성역할 평등 반대 태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해 주었다. 즉 보편주의 가치를 지닌 사람들은 소수 집단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태도를 지닌 반면, 권위주의적 성격의 사람이 덜 권위주의적 성격의 사람보다 소수집단(호남인, 여성, 영세민)에 대해 더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감정, 그리고 사회적 관계 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차별적 태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보편주의 가치를 고양시키고 권력 가치를 지양하도록 하는 가치 교육의 강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보편주의 가치가 보다 중시되며 가용화되도록 하는 사회 환경의 조성이나 문화규범의 형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IV. 분석 결과

1.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

이 연구에서 살펴볼 사회적 소수자는 여성, 장애인, 노인, 외국인노동자, 기타 소수자 집단이다. 기타 소수자 집단에는 동성애자, 이혼자, 편부모 가정

의 자녀, 자발적 무자녀 부부, 외모 관련 집단 등이다. 차별대상이 되는 이들 소수자 집단에 대해서 우리사회 사람들이 가지는 고정관념(혹은 편견)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고정관념은 ‘특정 집단의 모든 성원들은 어떤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과장되게 일반화시켜 믿는 신념들의 집합’으로서, 이것이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감정을 동반할 때 편견이라고 한다(Allport, 1954; Aronson, Wilson, and Akert, 1999).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개인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내용은 사실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생명력을 가진 사회적 실체로 존재하여,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우리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유형의 차별이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에 대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양한 설문들을 개발하고 이를 척도로 구성하였다. <표 2>에 제시된 설문문항들은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되었으며, 해당 질문에 찬성할수록 높은 점수를 얻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이 척도구성에 적절한지를 판별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만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들이 한 요인으로 적재되었다¹⁾. 그리고 신뢰도는 내적일관성 계수인 Cronbach α 값이 .70~.89로 양호하였다. 이 표에서 가장 먼저 제시된 척도일수록 해당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에 동의하는 정도가 낮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제시된 편견유형 가운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가장 낮으며, 조직생활 능력과 관련한 성(性)편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 소수자에 대한 편견,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편견 순으로 동의정도가 높게 나타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장애인은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는다”, “얼굴이 못난 사람은 성격에 모난 부분이 있다”, “노인의 경험은 오늘날 중요하지 않다” 등과 같은 편견에 동의 정도가 낮다. 반면에 “장애인의 일처리 속도가 떨어진다”, “동성애자는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는 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1) 노인에 대한 편견 문항은 노인의 능력(변화에 적응능력과 일한 능력)에 대한 문항과 그 밖의 문항들이 구분되는 요인으로 적재되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문항들도 장애인의 능력결함에 대한 문항들과 장애인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분되어 적재되었다. 하지만 분석의 편의상 한 요인으로 활용하였다.

다”,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에 비해 사회변화 적응력이 떨어지고 일할 능력도 떨어진다”는 점에는 상당히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 다양한 내용의 편견에 대해 사람들이 다양하게 생각하는 정도는 각 문항의 표준편차가 어느 정도 큰가에 따라 가늠해볼 수 있는데, ‘조직생활과 관련한 성편견’과 우리 사회 ‘여러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이 다른 유형의 편견들보다 좀 더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앞서서 제시한 다섯 유형의 편견이 응답자의 성, 연령, 교육수준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일원변량분석을 통하여 검정하여 보았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차가 발견된 것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다. 대체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외국인노동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해 더 편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각 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의 성차를 검정해본 결과,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동성애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똥똥한 사람은 게으르고 이혼한 사람은 이기적이라고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편견적인 태도에서 연령효과와 교육효과를 검정한 결과, 매우 일관된 연령별, 교육수준별 차이가 발견되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 나이든 사람들이 모든 유형의 편견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가 높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에 비해 편견정도가 높았다. 이 가운데에서 재미있는 발견은 젊은 사람들이 나이든 사람들보다 노인에 대한 편견을 더 가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층보다 나이가 많아지면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연령제한이나 나이든 사람부터 감원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표 2〉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의 내용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척도의 내적 일관성(a)
장애인에 대한 편견 척도	2000	2.59	.65	.80
열심히 일하려하지 않음		2.14	.97	
각급학교 장애인 입학불허 당연		2.31	.99	
장애인의무채용 지나친 간섭		2.43	1.01	
집근처 장애인시설 반대		2.52	.96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데 문제 있음		2.68	.95	
직장생활 적합하지 않음		2.80	.95	
일처리 속도 떨어짐	3.23	.98		
조직생활능력에 관한 성편견 척도	2000	2.62	.84	.89
직장인원감축시 여직원 먼저 줄이는 것 당연		2.35	1.10	
남성에 비해 일능률 떨어지므로 낮은 임금 당연		2.39	1.02	
남성보다 일에 대한 책임감 부족		2.52	1.08	
남성에 비해 폭넓은 대인관계 맺지 못함		2.81	1.07	
남성에 비해 일추진력 떨어짐		2.82	1.03	
남성에 비해 리더십 약함	2.85	1.06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편견 척도	2000	2.64	.75	.84
일자리는 내국인 싫어하는 일에 제한		2.43	.94	
언어, 문화 다르니 따로 사는 게 바람직		2.59	1.01	
내국인에 비해 생산성 떨어짐		2.68	.97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 안됨		2.73	.99	
육체노동이 적합		2.78	.90	
소수자에 대한 편견 척도	2000	2.84	.73	.78
얼굴 못생긴 사람 성격 모남.		2.26	.96	
똥똥한 사람은대부분 게으름		2.79	1.06	
이혼한 사람 대부분은 성격 결함 있음		2.80	1.06	
편부모나 고아는 사회성에 문제 있음		2.88	1.05	
결혼해서 자식 낳지 않는 사람들 이기적		3.03	1.08	
동성애자는 다른사람과 어울려 사는 데 문제있는 사람들		3.27	1.15	
나이많은 사람에 대한 편견 척도	2000	2.91	.62	.76
노인경험 오늘날 중요치 않음		2.27	.94	
사람채용시 나이제한 합리적		2.71	.98	
노인 능력저하로 낮은 임금 당연		2.77	.91	
나이든 사람부터 인원감축 합리적		2.79	1.01	
대부분 노인들 권위주의적		3.19	.96	
젊은이에 비해 일할 능력 떨어짐		3.27	.99	
젊은이에 비해 사회변화 적응력 낮음	3.37	.91		

주: 매우 반대 1점, 약간 반대 2점, 그저그렇다 3점, 약간 찬성 4점, 매우 찬성 5점으로 측정.

2. 일반적 가치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

소수 집단에 대한 태도에 개입되어 있는 가치를 검토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실질적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소수 집단 사람들이나 관련 정책에 대해서 갖는 태도 형성에 어떤 가치가 중요하게 개입되는지를 규명한다면, 소수 집단 사람을 돕는 것이나 이와 관련된 정책이 개인의 중요 가치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설득 메시지를 만들 수 있고, 이를 사회 교육 또는 학교 교육에 포함시킬 수 있다(Clary, Snyder, Ridge, Miene & Haugen, 1994). 이것을 우리 사회의 당면 문제에 적용해 보면, 탈북자,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소수 집단 사람들에게 대해 사회성원들이 보다 긍정적 태도를 가지도록, 관련 가치를 고양시키는 교육을 어린이들에게 실시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우리 사회의 소수 집단 사람들에게 대한 태도가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에 의해 공통적으로 영향 받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검토는 우리 사회의 주요 사회 갈등에 개입되어 있는 집단 범주에 대한 편견적 태도가 공통의 기제(즉, 가치)에 의해 비슷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지를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 연구주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채택하였다.

우선, 종속변수가 되는 5개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 가운데 기타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집단은, 편견의 정도가 가장 높았던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만을 모형에 포함시켰다.

설명변수인 일반 가치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Schwartz(1992)의 가치 척도 중 보편주의 가치, 권력가치 및 자기지도 가치(개인주의적 가치)를 반영하는 총 13개의 형용사를 사용하여 이 가치들을 측정하였다. 응답자들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8점 척도상(0: 중요하지 않음, 7:극히 중요함)에서 평가하였다. 자신이 거부하는 가치일 경우는 -1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개인의 가치와 편견의 관계를 검토하였던 김혜숙(1999)의 연구에 의하면, 이들 세 가지 가치는 북한 사람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보편주의 가치' 측정 문항은 '평등', '사회정의', '마음이 넓음', '환경보호', '정직' 및 '도움이 됨'의 6개 문항

으로 이루어졌고, ‘권력가치’는 ‘사회적 권력’, ‘사회적 인정’ 및 ‘권위’의 3개 문항, 그리고 ‘자기지도 가치’는 ‘자유’, ‘독립성’, ‘야망 있음’ 및 ‘성공’의 4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각 가치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의 영향에 대해 각각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 각 인구학적 변인별 가치 평가 평균과 이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가 나타나 있다. 이 결과를 보면,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편주의 가치를 제일 중시하고, 그 다음 보다 개인주의적 가치인 자기지도 및 성취를 중시하였고, 권력 가치를 제일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등과 사회정의 가치를 중시하는 보편주의 가치와 관련해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와 조사대상지역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보편주의 가치는 30~4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에서 가장 낮았다. 또한 충청 지역에서 가장 높았고, 호남지역에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권력과 사회적 인정 등을 중시하는 권력 가치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대도시 거주자일수록 또한 수도권 거주자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독립성, 자유 및 개인 성취 등의 자기지도 및 성취 가치는 남성이 여성보다, 그리고 30~40대에서, 또한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대도시 거주자일수록, 또한 충청 지역 응답자와 수도권 지역 응답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에서 보편주의 가치 신봉이 가장 낮았다는 사실은 이들이 사회정의나 평등과 같은 보다 자기초월적이면서 변화에 개방적인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이들은 보다 개인주의적이면서 자기고양적인 가치인 자기지도 및 성취 가치에 대해서도 30~40대에 비해 낮게 평가하였다. 전체적 가치 패턴을 볼 때, 20대에 있어서는 보편주의 가치와 자기지도 및 성취 가치의 신봉 정도가 유사하였고, 40대 이상의 연령층에 있어서는 보편주의 가치가 자기지도 및 성취 가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20대에 있어서 자기초월적인 보편주의 가치와 자기고양적인 자기지도 및 성취 가치가 비슷하다는 사실은 김혜숙(2002)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이전 세대에 비해 보다 개인주의적인 성취나 독립성 및 자유의 가치를 높게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3〉 인구학적 변인별 가치 점수 평균(표준편차)

	보편주의	권력	자기지도·성취
성별			
남	5.47(1.05)	4.21(1.43)	5.42(1.11)*
여	5.47(1.02)	4.26(1.33)	5.31(1.05)
전 체	5.47(1.04)	4.24(1.38)	5.37(1.08)
학력			
중졸이하	5.42(.90)	4.27(1.33)	5.21(1.00)*
고졸	5.48(1.08)	4.20(1.36)	5.36(1.10)
대재이상	5.48(1.05)	4.26(1.43)	5.45(1.08)
전 체	5.47(1.04)	4.24(1.38)	5.37(1.08)
연령			
20대	5.34(1.17)*	4.17(1.46)	5.33(1.23)**
30대	5.51(1.06)	4.21(1.40)	5.46(1.07)
40대	5.55(.94)	4.29(1.31)	5.45(.98)
50대 이상	5.48(.96)	4.29(1.36)	5.25(1.02)
전 체	5.47(1.04)	4.24(1.38)	5.37(1.08)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36(1.17)	3.95(1.47)*	5.22(1.11)*
100~200만원	5.45(1.05)	4.08(1.40)	5.31(1.08)
200~300만원	5.45(.97)	4.23(1.35)	5.38(1.06)
300~400만원	5.53(1.06)	4.53(1.26)	5.43(1.08)
400만원 이상	5.58(1.02)	4.35(1.44)	5.50(1.05)
전 체	5.47(1.04)	4.25(1.38)	5.37(1.07)
거주지규모			
대도시	5.52(1.05)	4.40(1.39)*	5.41(1.11)*
중소도시	5.42(1.04)	4.15(1.36)	5.35(1.05)
군지역	5.47(.95)	3.87(1.34)	5.28(1.04)
전 체	5.47(1.04)	4.24(1.38)	5.37(1.08)
거주지역			
서울경기인천	5.48(1.05)*	4.36(1.37)*	5.42(1.05)*
대전충남충북	5.69(1.05)	4.18(1.28)	5.51(1.04)
광주전주전남전북	5.37(1.06)	3.81(1.34)	5.24(1.12)
부산대구경북경남	5.45(.97)	4.28(1.43)	5.34(1.09)
전 체	5.48(1.04)	4.26(1.38)	5.39(1.07)

* p<.05, ** p<.01

각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분석을 통해서 탐색되었다. 분석모형의 종속 변수는 소수 집단별 편견적 태도 척도이고 설명변수는 세 가지 가치 척도이다. <표 4>는 세 가지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예상한대로 보편주의 가치는 장애인,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를 부(-)적으로 예언해 주었으며, 반대로 권력가치는 동성애자를 제외하고 모든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를 정(+)적으로 예언해 주었다. 자기지도·성취 가치는 장애인, 여성,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편견적 태도를 부(-)적으로 예언해 주었다. 다만 회귀계수의 크기나 통계적 유의도 수준에서 볼 때, 보편주의 가치가 자기지도·성취 가치보다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를 낮추는 데 좀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 학력, 연령은 사회적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매우 일관된 효과를 보인다. 먼저, 성의 효과를 살펴보면, 여성들은 노인 집단을 제외하고 모든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서 남성들보다 낮은 편견적 태도를 보였다. 물론 여성들의 여성에 대한 편견이 여러 항목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그밖에 외국인노동자와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도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이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적 태도는 상대적으로 남성과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편견적 태도 정도를 살펴보면, 대상 집단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는 학력이 높을수록 일관되게 낮아진다. 그러나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편견은 중졸 이하 학력자와 고졸 학력자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나이가 많을수록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편견 정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졸 이하 학력자와 고졸 학력자는 전문대 이상 학력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집단으로서, 이 두 학력 집단은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유사한 태도를 보이는 듯하다. 한편, 특기할 만한 것은, 여성과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서 학력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모형분석 결과,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력

이 높을수록 성평등적 가치관도 높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학력이 여성에 대한 편견을 낮추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이 연구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적 태도를 측정하는 데에, 조직생활능력과 관련된 설문문항만을 포함시킨 데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조직생활과 관련한 여성의 능력에 대해서는 학력과 무관하게 대체로 일치하는 견해를 보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연령은 모든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일관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모든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가 낮아진다. 그러나 그 감소 정도에선 대상 집단별로 차이를 보이는 데,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여성에 대한 편견적 태도도 연령에 따른 차이가 컸다. 이에 비해 나이 많은 사람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적 태도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결국,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 가운데, 조직생활 관련 여성에 대한 편견과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에서 세대간 차이가 가장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층의 대리변수로 모형에 포함시킨 가구소득 변수는 어떤 소수 집단 편견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 가치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먼저, 보편주의 가치의 효과를 살펴보면, 보편주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과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편주의 가치는 동성애자나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권력 가치는 동성애자를 제외하고 모든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를 일관되게 높이고 있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적 태도를 높이는 정도가 컸다.

자기도 · 성취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 여성에 대한 편견적 태도가 낮은 편이었고, 미미하나마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편견적 태도도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자기도 · 성취 가치가 편견적 태도를 낮추는 정도는 보편주의 가치의 효과보다 낮았다.

〈표 4〉 사회적 소수자 편견에 대한 일반가치의 회귀분석결과

단위: 회귀계수(표준편차)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여성에 대한 편견	외국인노동자 에 대한 편견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편견
intercept	3.163 *** (.112)	2.936 *** (0.141)	3.114 *** (.132)	3.049 *** (.208)	3.030 *** (.112)
남성	-	-	-	-	-
여성	-.066 * (.028)	-.592 *** (.035)	-.172 *** (.033)	-.246 *** (.052)	-.003 (.028)
가구소득	.000 (.002)	-.004 (.002)	.000(.002)	-.001 (.003)	-.001 (.002)
중졸 이하	-	-	-	-	-
고졸	-.101 * (.045)	-.008 (.056)	-.135 * (.053)	.016 (.083)	-.052 (.045)
전문대 이상	-.208 *** (.050)	-.088 (.063)	-.222 *** (.059)	-.008 (.093)	-.139 ** (.050)
연령	.005 *** (.001)	.013 *** (.002)	.008 *** (.002)	.014 *** (.002)	.003 * (.001)
보편주의 가치	-.120 *** (.019)	-.069 ** (.024)	-.108 *** (.022)	-.009 (.035)	-.024 (.019)
권력 가치	.076 *** (.011)	.056 *** (.014)	.050 *** (.013)	-.021 (.020)	.047 *** (.011)
자기지도 가치	-.059 ** (.019)	-.065 ** (.024)	-.039 (.022)	-.016 (.035)	-.044 * (.019)
R ²	0.19	0.19	0.10	0.04	0.04
F	56.9 ***	56.9 ***	25.75 ***	9.86 ***	9.18 ***
N	2000				

주: * p<.05, ** p<.01, *** p<.001.

V. 맺음말

이 연구는 차별의 인지적·감정적 차원에 해당하는 고정관념 또는 편견을 중심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관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를 살펴본 결과, 장애인 → 여성 → 외국인노동자 → 기타 사회적 소수자 → 나이 많은

사람의 순서로 편견 정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기타 사회적 소수자를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이 가운데 동성애자나 자발적 무자녀 가정, 편부/편모 가정의 자녀 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완고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직생활과 관련한 여성의 능력에 대한 편견과 기타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의 응답 결과는 표준 편차가 상당히 큰 편으로, 우리 사회에 이들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연령에 따른 격차가 커서 세대 갈등의 소지도 다분히 발견되었다.

이 연구의 두 번째 연구주제인 일반가치와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체적으로 보편주의 가치와 자기도 가치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적 태도를 낮추고, 권력가치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적 태도를 높였다. 그러나 자기도 가치의 편견 감소 효과는 보편주의 가치의 감소 효과보다는 작은 편이었다. 분석 결과,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은 여성이 남성보다, 그리고 젊은 사람일수록 낮은 편이었지만, 세 가지 가치는 이 편견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 집단은 여전히 가장 주변적인 집단이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태도는 학력이나 가치관,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상당히 동질적인 편이라고 여겨진다.

보편주의 가치, 권력가치 및 자기도 가치와 연령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보편주의 가치는 젊은 사람일수록, 권력가치는 나이 든 사람일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대상 가운데 가장 젊은 20대 연령층의 경우 보편주의 가치와 자기도 가치 즉 개인주의적 성향의 가치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여, 개인주의적 성향이 가장 큰 집단으로 나타났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도 가치가 소수집단에 대해서 갖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보편주의 가치에 비해서 약한 편이다. 그러나 장차 우리 사회에서 소수집단은 점점 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것이고 이들과 기존세력과의 갈등은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다. ‘차이’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이 부족한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사회적 소수집단과 기존집단과의 화해와 공존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보편주

의적 성향만큼 개인주의적 성향이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한편 우려되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아동기, 청소년기의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도 보편주의적 성향을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담을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혜숙(1999). 집단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편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3권 제1호, pp.1~33.
- _____ (2002).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6권, pp.35~50.
- 정기선(1999). 탈북자에 대한 이미지연구, 통일문제연구, 11권 1호.
- _____ (2003).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접촉, 사회적 거리감과 인상변화, 외국인노동자의 일터와 삶, 석현호 등저. 서울: 지식마당.
- Allport, G. W.(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ss.: Addison-Wesley.
- Aronson, Elliot, Timothy D. Wilson, and Robin M. Akert(1999). *Social Psychology*. 3rd ed. Addison-Wesley Educational Publishers Inc.
- Clary, E. G., Snyder, M, Ridge, R. D., Miene, P. K., & Haugen, J. A.(1994). Matching messages to motives in persuasion: A functional approach to promoting volunteerism,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13), pp.1129~1149.
- Fiske, S. T.(1998). Stereotyp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Vol.2, pp.357~411), New York: McGraw-Hill.
- Gaertner, S. L., & Dovidio, J. F.(1986). The aversive form of racism. In J. F. Dovidio Diego, CA: Academic and S. L. Gaertner(Eds.),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pp.61~89), San Press.
- Gastil, J. 1992. Why we believe in democracy: Testing theories of attitude functions and democrac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2(6), pp.423~450.
- Herek, G. M.(1987). Can functions be measured? A new perspective on the functional approach to attitud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 pp.285~303.

Katz, I.(1960). The functional approach to the study of attitudes, *Public Opinion Quarterly*, 24, pp.163~204.

_____ & Hass, R. G.(1988). Racial ambivalence and value conflict: Correlational and priming studies of dual cognitive struc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pp.893~905.

Mackie, D. M., Devos, T., & Smith, E. R.(2000). Intergroup emotions: Explaining offensive action tendencies in an intergroup contex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pp.602~616.

Rokeach, M.(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ss Press.

Schwartz, S. H.(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5, pp.1~65.

Shavitt, S.(1989). Operationalizing functional theories of attitudes. In A. R. Pratkanis, S. J. Breckler, & A. G. Greenwald (Eds.), *Attitude structure and function*(pp.311~337),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Study on Prejudice Towards Minority Groups

Soomi Park*
Kiseon Chu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level of prejudice and stereotyping of minority groups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general values that people have and their attitudes toward them by analyzing a nationwide survey on people's consciousness of discrimination. As a result of a measurement of the level of prejudice and stereotyping of a group, irregular workers and people with lower academic careers were the least victimized by prejudice. Discrimination towards those in minority groups such as lesbians/gays, voluntary childless families, single parent families, and so forth, were reported to be very serious matters. The older the subjects were and the lower their education backgrounds, the more severe the prejudice was towards such minority group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general values that people have and their attitudes toward minority groups has been analyzed.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universal values which emphasize equality and social justice tend to make people more supportive of minority groups, whereas values derived from power are linked to the negative attitudes towards minority groups.

Key words: social minority, discrimination, prejudice and stereotyping, universal values, values derived from power

* Fellow, KWDI

** Director policy development, Gyeongido Family & Women's Development Institute